

운송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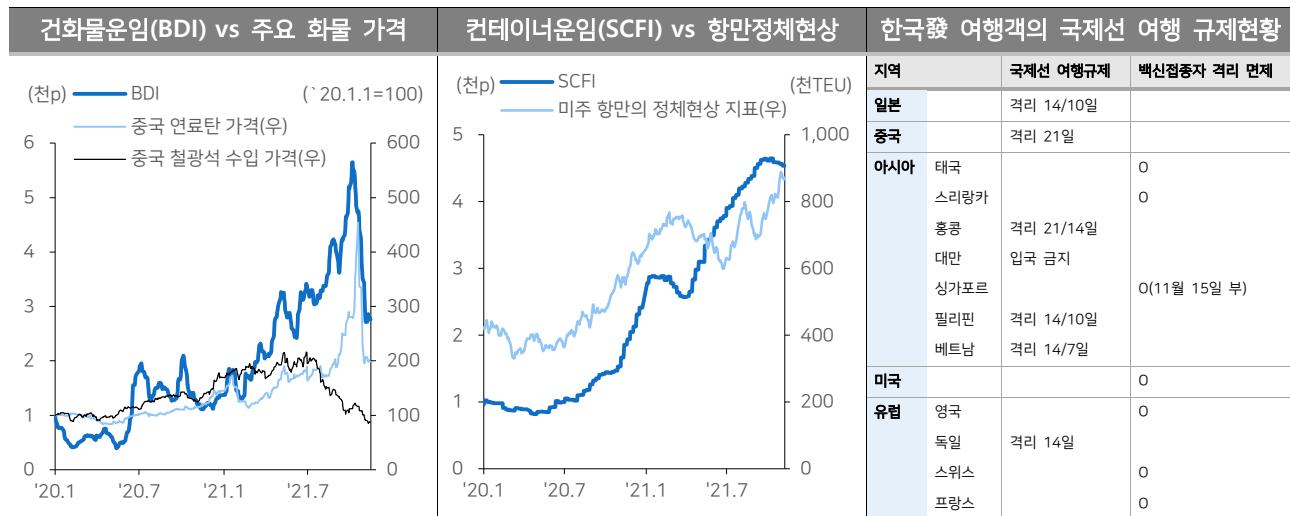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2021. 11. 16 (화)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US government to look into tech to ease supply chain congestion

미해사연방위원회가 자국 항만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기술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됨. 당국은 정보의 제약이 컨테이너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조사하고, 정보 공유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VLGC rates jump 20% as Panama Canal waiting times hit 18 days

VLGC(Very Large Gas Carrier)의 스팟운임이 한 주 만에 20%가량 급등했다고 보도됨. 원인은 파나마운하 내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일일 운임은 평균 41,2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보도됨. 파나마운하 통행을 위한 대기 시간은 18일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Oil Supply to Remain Limited, but Not For Long

유조선사들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2022년 초부터 더 많은 석유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익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바이든 정부는 OPEC+에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2021년 말까지 총 원유 생산량에 200만 bpd 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Hellenic Shipping News)

### CJ대한통운, 내년부터 기업 택배비 50~1,000원 인상

대한통운은 개인 택배비를 제외한 기업 택배비에 한하여, 소형 택배를 50원 인상할 예정이며 대형 택배는 1,000원을 올린다고 밝힘. 대형 택배는 전체 택배의 약 0.3% 수준이라고 보도됨. 또한 중대형 택배 비중이 40% 이상이면 200원, 60% 이상이면 300원, 80% 이상은 400원씩 추가 할증한다고 보도됨. 할증제도가 적용되는 기업고객 수는 전체 기업 고객 중 약 4% 수준이라고 보도됨. (뉴스1)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충북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